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보도 자료 |  |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|  |
| | | 국회의원 전순옥 | |

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배포일 | ‘12. 10. 10. (수) | 담당자 | 조영학 보좌관 | H.P. | 010-9508-0810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
- R&D 사업 수행 결과로 출원한 특허건수 대비 특허등록율을 해마다 감소,
- 지경부의 형식적 R&D 성과 관리에서 기인

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‘국가 R&D 사업 수행 결과로 출원한 특허의 건수에 비해, 실제 등록된 특허등록율은 해마다 현저히 감소’ 하고 있으며, 이는 ‘지식경제 R&D 사업도 마찬가지로’ 라고 밝혔다.

전순옥의원실이 특허청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, 국가 전체 R&D 사업 수행 결과로 출원한 특허건수 대비 특허등록율은 2006년 66.4% ---> 2007년 58.8% ---> 2008년 43.8% ---> 2009년 30.8% ---> 2010년 25.8%로 해마다 뚜렷이 감소하고 있고, 그 중 지식경제 R&D 사업의 경우에도 2008년 40.1% ---> 2009년 24.3% ---> 2010년 20.9% 로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최근 5년간 정부 R&D 사업을 통한 특허 등록 현황> (출처:특허청)

| 구 분 | 2006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등록 건수 | 5,095 | 8,052 | 6,197 | 4,599 | 4,641 |
| 출원 건수 | 7,672 | 13,691 | 14,134 | 14,905 | 17,969 |
| 출원 대비 등록 비율 | 66.4% | 58.8% | 43.8% | 30.8% | 25.8% |
| 현재 등록 유지 건수 (등록유지율) | 3,989 (78.29%) | 7,147 (88.76%) | 5,946 (95.95%) | 4,594 (99.89%) | 4,640 (99.98%) |

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“이는 정부가 R&D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애초부터 특허받기 힘든 기술도 일단 출원만 하면 성과로 인정해주기 때문” 이라고 밝히며, “타당한 R&D 성과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동등하게 인정해서는 안되며, 실제 특허로 등록된 기술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가점을 주거나, 아니면 아예 단순 출원에 대해서는 성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